

정세균 총리 광주서 중대본 회의...민생 챙기고 민심 잡기

설 연휴 앞두고 10일 광주 방문

양동시장·글로벌모터스 공장 찾아

이낙연 대표 1박2일 광주·전남 방문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비판 반박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0일 동시에 호남을 찾는다. 이들의 호남 방문은 각각 호남 민심 청취와 공식 일정 등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 구애 경쟁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주 방문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되고 있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오는 10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광주 시청에서 주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제1하수처리장간 이원 중계로 열리는 빛고을에코 연료전지발전사업 착공식에 참석한다. 또 광주 양동시장 및 광주형일지리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방문과 함께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이날 행보는 총리로서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는 모습과 함께 민생 현안도 살펴보고, 특히 여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 총리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정 총리 지지자들이 오는 3월 외곽조직원 포럼 발족을 준비하며 지지세 결집에도 나서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는 10일과 11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다시 찾는다. 이 대표는 광주·전남지역 주요 민생 현장을 찾아 발품을 팔며 지역현안과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광주 방문은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다. 지난달 18일 5·18 민주묘지 참배와 양동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6일 오후에는 민주화운동의 거목인 고 강신석 목사의 빈소가 마련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고인은) 광주의 중심이고 기둥이었다.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중심을 잡아주는 것에 대해 늦게나마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목사님은 늘 소외된 약자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고 애도했다.

올 들어 이 대표의 호남 방문이 잦은 것은 연초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놓았다가 지지율 급락을 불러온 텃밭에서 흔들린 민심 잡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한 달 남겨놓고 조용한 반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취임 당시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급락세에 제동이 걸리며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1%에서 한 달 만에 29%로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이낙연 대표를 향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모두 '불가능'으로 여겨지던 것들이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 중 누군가가 용기와 준비, 도전으로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일각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외국에 선례가 없어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갑 연 문 대통령, 마음 연 상인들...신안 젓갈타운 모처럼 웃음꽃

풍력단지 투자협약식 참석후 방문

젓갈서 감까지 다양한 수산물 구입

상인들 "힘 내세요"...박수·환호

신안젓갈타운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코로나 19로 관광객이 줄면서 시름에 잠겨 있던 상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찾아 위로하자 크게 반기며, 뜨겁게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안 임자대교에서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마친 후 신안젓갈타운을 찾았다.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박천일 상인회장 등의 안내로 상인들과 대화하다가 즉석에서 지역상품권을 꺼내주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상인 한 명이 "꿀유자차를 한 잔 드리고 싶다"고 하자 상점 앞에 머문 문 대통령은 "신안 젓갈이 맛있는 이유가 뭐죠?"라고 물었다. 이에 "소금이 좋고, 질 좋은 새우를 많이 쓰니까 맛이 좋다"고 답했다. 장사가 잘 안 된다든 상인 말에 옆에 있던 김 지사가 "대통령께서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의 소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을 좋아한다"는 문 대통령이 곱창돌김을 산 뒤 계속 옆 상점으로 옮겨가며 수산물을 사들였다. 마지막 들른 상점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신안젓갈타운을 방문, 새우젓을 구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마스크 벗고 좋은 세상을 다시 맞아야죠"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상인들은 큰 박수로 배웅했다. 먼 발치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우젓 2통(4kg), 낙지젓,

오징어젓, 건새우, 곱창돌김, 물김, 민어 등 다양한 수산물을 구매했다. 상인들의 매출을 올려 주기 위해 일부러 거의 모든 상점을 들렀기 때문이다. 젓갈타운에서 구입한 이들 수산물은 청와대 춘추관 구내식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권 지지율 이재명 27%, 1위 독주 굳히기...이낙연 10%·윤석열 9%

갤럽 여론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지지율에서 유일한 20%대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굳히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다중회 정지 지도자, 즉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이 지사는 27%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23%)보다 4%포인트 상승, 한국갤럽의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선호도는 인천·경기(41%), 남성(35%), 40대(38%) 등에서 두드러졌다.

여권 양대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선호도는 지난달과 같은 10%를 유지했다. 이 지사와의 격차는 17%포인트로 벌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 무소속 홍준표 의원(2%)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

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0%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9%로 지난주(1월 4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도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22%로 집계됐다. 정의당(5%), 국민의당(4%), 열린민주당(3%)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검찰 간부 인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박법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심재철(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 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에도 책임이 있는 인물로 꼽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대상 중 1명이다.

심 검찰국장의 후임은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전임자인 박순철 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그 뒤를 이

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의혹 등을 석달여 동안 수사해왔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이 맡는다. 조 지검장이 빠진 자리에는 김지용(28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이봉한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한다.

이들 외 고위 간부의 인사이동은 없으며,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도 없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27기) 검사장도 그 자리에 머물게 됐다. /연합뉴스



6일 오후 '민주화운동의 거목' 고(故) 강신석 목사의 빈소가 차려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